

#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 연구

이창식\*, 송국범\*\*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sup>1</sup>, 한서대학교 교양학부<sup>2</sup>

## A Study on the Donations and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Chang Seek Lee<sup>\*</sup>, Kuk Beom Song<sup>\*\*</sup>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sup>\*</sup>

Dept. of Liberal Arts, Hanseo University<sup>\*\*</sup>

**요약** 이 논문은 중고대학생 1,230명을 대상으로 기부실태와 기부유형별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시간기부, 물질기부, 재능기부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기부 관련 변인들 즉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관 신뢰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청소년 물질기부 경험 유무의 예측변인은 성별, 연령, 기부 외적 동기, 기부태도,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관 신뢰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기부 경험 유무의 예측변인은 성별과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재능기부 경험 유무 예측변인은 연령, 기부 내적동기 및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나 기부유형별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기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기부, 물질기부, 시간기부, 재능기부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verify the current status of adolescents' donations and predictors influencing their donation behaviors. First, the result revealed that adolescents' donation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time, material, and talent donation. Second, donation motives, attitude towards donation, self-esteem, a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the predictors of material donation behaviors of adolescents were gender, age, extrinsic motives, attitude towards donation,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And the predictors of time donation behaviors were gender and sense of community, and those of talent donation were age, intrinsic motives and sense of community. The strategies for the activation of adolescents' don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 Adolescent, Donation, Material donation, Time donation, Talent donation

### 1. 서론

기부활동은 민주주의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기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부자나 재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기부자 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액수도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은 어느 정도 현재의 기부 가능성뿐만 아니라 잠재적 기부자로서 미래 기

\* 이 논문은 2013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1 November 2013, Revised 30 Nov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Chang Seek Lee(Hanseo University)

Email: csl@hanseo.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중요한 대상이며, 한번 기부한 경험자는 계속해서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1] 고려할 때 기부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또한 청소년의 기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발전 및 건강한 사회유지를 돕는 요인의 하나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비록 성인이 아니지만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이상을 위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동참하는 시민 정신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2]. 따라서 청소년의 기부는 단지 부족한 자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성원들 간에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이자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

기부현황을 보면 한국 기부는 시간이나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물질기부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아름다운재단[3]의 보고에 의하면 종교적 기부나 경조사 기부를 제외한 기부 참여는 개인의 55.7%가 기부를 한 적이 있으며, 순수 기부 금액은 2000년 기부자 평균 기부금 9만 9천원에서 2009년에는 1인당 18만 2천원으로 약 2배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국민의 기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어린이재단[4]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청소년 기부자의 수는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00원부터 할 수 있는 콩 모으기 기부나 인터넷 포털 업체 NHN이 진행한 해피빈 프로젝트를 보면, 소액을 기부하는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10대~20대 연령층으로, 청소년 기부층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시간기부의 하나인 재능기부는 기부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봉사자에게는 자기 분야의 경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수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5] 특징이 있어 청소년 기부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청소년 기부에 대한 연구는 시간기부인 자원봉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초보단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부관련 연구는 현재 시간기부인 자원봉사에 집중되고 있으나, 물질기부나 재능기부는 소수의 연구만이 발표되고 있다[6][7]. 이 또한 석사학위는

문이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기부 유형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청소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들의 물질, 시간 및 재능기부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기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기부의 개념

기부(寄附)란 자신이 가진 돈이나 물품, 능력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8]. 즉, 개인이 이타주의 실천을 위하여 어려운 개인이나 이웃을 위해 선행의 돈이나 물품 및 능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부란 공공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이며,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9]. 이러한 정의는 기부를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 변혁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의 두 정의는 목적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상의 의미와 이타주의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부와 유사한 개념인 자선(charity)과 박애(philanthropy)를 기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 및 동정심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과 자비심에 근거한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자선에 내포된 기본적 사회관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관계이며, 불행한 자를 위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자선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는데, 자선을 받는 자가 이를 제공하는 자보다 덜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선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기부로서 지역사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의 일부로 이루어진다[10].

박애는 대규모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여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

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가 기부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1]. 즉, 박애인 philanthropy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비스를 위한 조직화된 기구에 돈을 기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12].

최근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물질기부와 함께 시간 기부의 하위영역으로 재능기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재능기부는 기부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봉사자에게는 자기 분야의 경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수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5] 장점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물질기부보다는 재능기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연구는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고자 한다.

## 2.2 기부관련 요인

기부와 관련된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을 일반적 특성 요인,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2.1 일반적 특성 요인

**성별.** 성별이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상존한다. 여성이 기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가[1] 있는데, 이는 여성이 평소 양육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타적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13]. 반면 남성의 기부율과 기부액이 여성보다 많다는 연구결과도[14][15]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령.** 연령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도 연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에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6][17][18][19][20][21]. 그러한 이유는 향상소득가설로 설명이 가능한데 청년층과 노년층은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 미래에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겪을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염려로 기부행동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종교.** 종교가 있는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Independent Sector[23]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 가운데 75%가 기부경험이 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는 64%만이 기부경험이 있었다. 또한 종교가 기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23][24][14][15][25] 의하면 종교가 자원봉사, 현금기부, 지역사회 원조 등 여러 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기 때문으로[26] 보고 있다.

### 2.2.2 심리적 특성 요인

**기부동기.** 기부동기는 기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행동 자체의 목적 때문에 보상의 기대감이나 의무감 없이 행해지는 이타적 동기가 타인들에게 알려려는 욕구, 사회적 위신이나 지위 획득, 세계혜택, 보상선호 등과 같은 이타적 동기보다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27][28][29][30][26]. 반면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30][31]도 보고되고 있다.

**기부태도.** 태도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 과거의 지속적인 경험으로 조직화된 개인의 반응인데[32]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적인 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8][31][26], 자신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일수록 기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33][29][26].

**자아존중감.**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인 자아존중감이[34]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35]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기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2.2.3 사회적 특성 요인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집단으로 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을 의미한다[36].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이 기부 내적 및 외적 동기, 기부태도의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7].

**기부기관신뢰.**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기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로는, 기부결정시 고려하는 요

인으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78.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8]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처에 대한 신뢰수준이 증가할수록 기부참여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18].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중고등학생 표집을 위하여 4개시군의 중고등학교, 대학생 표집을 위하여 2개시의 대학교의 학생들을 편의표집하였다.

조사대상 지역별 중고등학생은 S시가 35.3%로 가장 많고, 다음 D시 25.4%, H군 24.9%, T군이 14.4%로 이들 지역 중 중학생이 32.6%, 고등학생 40.4%였다. 대학생은 H대학교 69.3%, S대학교 30.7%로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청소년 수는 1,230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41.4% 여학생이 58.9%이었으며, 연령은 14세에서 28세까지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7.9세이고, 18세가 28.5%로 최빈 연령을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30.1%, 불교가 9.6%, 천주교 7.4%이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1.1%였다.

#### 3.2 조사도구

##### 3.2.1 기부동기

기부 외적 동기는 유수진[31] 조휘일의 [39]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13개의 문항 중 청소년의 동기 측정에 적합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기부 내적 동기 척도는 하희정의[26] 10문항 중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만일 기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동기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동기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46, 내적 동기 Cronbach’s  $\alpha$ =.442, 외적 동기 Cronbach’s  $\alpha$ =.836으로 나타나 내적 동기의 신뢰도가 낮았으나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3.2.2 기부태도

기부태도 척도는 Salamon[36]의 척도를 유수진 [31]과 하희정[27]이 부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태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27로 나타났다.

##### 3.3.3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 척도는 은지용[40]과 주주자[41]가 각각 사용한 것을 최영아[42]가 재구성한 전체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49로 나타났다.

##### 3.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43]의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5문항, 부정적인 문항 5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자기수용 측면의 측정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744으로 나타났다.

##### 3.3.5 기부기관 신뢰

기부기관 신뢰 척도는 Drollinger[44]가 개발한 기부기관에 대한 태도 척도를 김유나[30]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부기관에 대해 신뢰성, 유용성 및 필요성으로 분류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성은 기관의 기능에 대한 신뢰,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정도를 의미하고 유용성 및 필요성은 기관 기능의 효율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752다.

##### 3.3.6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기부실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물질기부, 시간기부 및 재능기부를 1-4회 및 없음으로 측정하였

대[37].

### 3.3.7 기타 변인

청소년의 성별, 연령,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무교)를 측정하였다.

###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 주 요변인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하여 상관분석, 그리고 기부유형별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파악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청소년의 기부실태

청소년의 기부실태를 파악한 결과 물질기부는 청소년 76.5%, 시간기부는 88.7%, 그리고 재능기부는 34.7%가 1회 이상 경험하였고, 청소년의 시간기부 경험이 가장 많았다. 또한 물질기부는 1회가 27.4%로 가장 많은 반면 시간기부는 4회 이상이 42.9%, 재능기부는 4회 이상이 15.5%로 나타나 시간기부와 재능기부는 물질기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donation by adolescents

Class.	Material donation		Time donation		Talent donation	
	f	%	f	%	f	%
Once	326	27.4	158	13.3	86	7.4
Twice	228	19.2	161	13.6	49	4.2
Third	118	9.9	225	18.9	89	7.6
Above fourth	238	20.0	510	42.9	180	15.5
None	280	23.5	134	11.3	761	65.3
Total	1190	100.0	1188	100.0	1165	100.0

### 4.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상관분석 결과 상관변인에 투입한 모든 변인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기부태도와 외적 동기가 가장 높은 상관( $r=.610, p<.01$ )을 보였고 다음으

로 외적동기와 공동체 의식( $r=.524, p<.01$ ), 기부태도와 공동체 의식이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 $r=.488, p<.01$ )을 보였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5
1. Intrinsic motives	1				
2. Extrinsic motives	.383**	1			
3. Attitude	.250**	.610**	1		
4. Sense of community	.349**	.524**	.488**	1	
5. Self-esteem	.058*	.138**	.158**	.292**	1
6.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258**	.252**	.342**	.283**	.121**

\* $p<.05$ , \*\* $p<.01$

### 4.3 청소년의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인

#### 4.3.1 청소년의 물질기부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청소년의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물질기부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X^2=187.034(df=9, p<.001)$ 로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76.95%로 나타났다(<Table 3>).

청소년의 물질기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연령, 기부 외적동기, 기부태도, 공동체 의식, 자존감이었으며, 종교, 기부내적 동기와 기관 신뢰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즉, 물질기부 경험은 성별이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외적 동기가 낮을수록,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2 청소년의 시간기부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시간기부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38.768(df=9, p<.001)$ 로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88.4%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기부 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aterial donation

	B	S.E.	Wald	D.F.	p	Exp(B)
Gender(M=1)	.301	.152	3.927	1	.048	1.351
Age	.320	.039	68.441	1	.000	1.377
Religion (Christian=1)	.254	.163	2.416	1	.120	1.289
Extrinsic motive	-.352	.150	5.538	1	.019	.703
Intrinsic motive	.190	.164	1.339	1	.247	1.209
Attitude towards donation	.817	.188	18.854	1	.000	2.263
A sense of community	.408	.147	7.670	1	.006	1.504
Self-esteem	.617	.142	18.799	1	.000	1.854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093	.153	.367	1	.545	.912
Constant	-9.716	1.039	87.364	1	.000	.000

$X^2=187.034(df=9, p<.001), -2LL=1108.253, Nagelkerke R^2=.220$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ime donation

	B	S.E.	Wald	D.F.	p	Exp(B)
Gender(M=1)	.499	.196	6.509	1	.011	1.648
Age	.319	.053	36.787	1	.000	1.376
Religion (Christian=1)	-.191	.218	.770	1	.380	.826
Extrinsic motive	.162	.193	.703	1	.402	1.176
Intrinsic motive	-.243	.213	1.299	1	.254	.784
Attitude towards donation	.027	.247	.012	1	.912	1.028
A sense of community	.557	.194	8.268	1	.004	1.745
Self-esteem	.166	.183	.817	1	.366	1.180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125	.198	.398	1	.528	.882
Constant	-5.419	1.277	18.018	1	.000	.004

$X^2=91.210(df=9, p<.001), -2LL=744.218, Nagelkerke R^2=.147$

변인은 성별과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종교,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존감 그리고 기관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3 청소년의 재능기부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청소년의 재능기부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5와 같다. 회귀 모형은  $X^2=36.597(df=9, p<.001)$ 로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88.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능기부 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연령, 기부 내적 동기,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종교, 기부 외적동기, 기부태도 및 자존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능기부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

## 5.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을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기부실태를 파악한 결과 청소년은 시간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질기부와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간 기부는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물질기부도 높은 경험을 보였다. 반면 재능기부는 가장 낮은 경험 수준을 보였는데 조사대상이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alent donation

	B	S.E.	Wald	D.F.	p	Exp(B)
Gender(M=1)	.143	.174	.676	1	.411	1.154
Age	.883	.056	250.686	1	.000	2.418
Religion (Christian=1)	-.071	.186	.148	1	.700	.931
Extrinsic motive	-.276	.170	2.625	1	.105	.759
Intrinsic motive	.385	.178	4.669	1	.031	1.470
Attitude towards donation	.107	.202	.278	1	.598	1.113
A sense of community	.391	.164	5.661	1	.017	1.478
Self-esteem	.248	.159	2.417	1	.120	1.281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182	.163	1.253	1	.263	1.200
Constant	-19.674	1.336	216.948	1	.000	.000

$X^2=598.936(df=9, p<.001)$ ,  $-2LL=894.288$ , Nagelkerke  $R^2=.557$

중고생이 많아 재능기부를 하기에는 낮은 연령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관 신뢰 등 모든 변인들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기부경험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물질기부 경험은 성별이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외적 동기가 낮을수록, 기부태도가 긍정적인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14][15][11][16][17][18][19][20][21][31][26][37]. 반면 물질기부 경험이 기부외적 동기가 낮을수록 높은 이유는 기부 외적 동기 측정이 기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인지능력의 차원을 반영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능력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의 시간기부 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과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37]. 끝으로 재능기부는 연령, 기부내적 동기,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부 일치하였다[11][16][17][18][19][20][21][31][28][37].

따라서 청소년의 기부실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기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기부유형 즉, 물질, 시간 및 재능기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공

동체 의식은 세가지 기부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기부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단순하게 물질, 시간 및 재능기부를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인 기부경험을 규명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부경험을 조사하여 기부유형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undertaken with the support of a research grant awarded in 2013 from Hanseo University

## REFERENCES

- [1] Shelley, L., & Polonsky, M. J. (2002). Do charitable causes need to segment their current donor base on demographic factors? An Australian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 (1), 19-29.
- [2] Kang, C. H., Chung, S. W., "Analysis by Fixed Effect Regression Method = A Study of the

-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3, no. 4, pp.29-57, 2007.
- [3] The Areumdaun Foundation Institute of Donation and Donation, Giving Korea, Areumdaun, Seoul, 2010.
- [4] Children Foundation, 2010. www.childfund.or.kr
- [5] Shin, Y. K., “A Study on Factors of Volunteers to Determine Contribu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 Women’s University, 2010.
- [6] Kim, S. J., “A Study of Cultural Arts Revitalization through Talent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12.
- [7] Lee, K. H., “The Relations among Talent Donation and Satisfaction on Military Servi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1.
- [8] Donation Information Guide, 2008 www.giveguide.com
- [9] Report of Community Chest of Korea 2006 www.chest.or.kr
- [10] Jeong, H. Y.,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Giving Behaviors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Amounts and Duration of Do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il university, 2006.
- [11] Kim, N. S., “(An) Analytical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Giving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2007.
- [12] Payton, R. L. (1989). Philanthropic Value, Philanthropic Giving. Oxford University Press.
- [13] Kim, Y. K.,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line Donation Behavior to Char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14] Hwang, C. S., Kang, C. H, “A Study on Individual Giving in Korea. An Analysis of the Philanthropic Efforts”, Korean Journal of Non-profit Organization, vol. 1, no. 2, 33-73. 2002.
- [15] Kim, K. R., “A Study on the Donat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White Color Worker in Big Enterprise: For the Development of Fund Raising Concentrated on Marketing Mix”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16] Oh, H. J., “(A) Study on Donating Behaviors and its Related Factors of Charitable Donators : Focused on the Amount of Money and Philanthropic Effor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17] Goh, I. 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ona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atolic University, 2004.
- [18] Han, J. 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stainable Dona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2004.
- [19] Danko, W. D. & Stanley, T. J. (1986). The millionaire next door: the surprising secrets of America’s wealth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 [20] Halfpenny, P. (1991).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in Britain: Who Gives What and Why? 5th ed. Charities Aid Foundation, Tonbridge.
- [21] Schlegelmilch, B. (1988). Targeting fund-raising appeal: how to identify donor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2(1), 31-40.
- [22] Independent Sector (199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1994 edition.
- [23] Cho, S. R.,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ity of Sponsor Activities of Sponsor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1995.
- [24] Park, J. M,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Donors in Social Welfare Agency : Concentrating on the Factors in Rrelation to Donors’ Duration of making a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atolic University, 1995.
- [25] Jeong, Y. S., “Economic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Charitable Behavior : An Empirical Study on Private Giving Behavior in Korea”,



-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0.
- [26] Ha, H. J.,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Don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ngju University, 2004.
- [27] Piliavin, J. A., & Charng. H. (1990). Altruism: A review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27-65.
- [28] Park, M. R., " (A) Study of Corporate Employees' Donation Behavior : an Exploration of Marketing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29] Kim, Y. N. , "A Study on the Donations and Philanthropic Effor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in Focus of On-line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02.
- [30] Oh, D. Y.,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Giving Behavior of Monetary Donors : an Exploratory Study for including Continuous Giving Behavior using Brand Equ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30] Glazer, A., & Konrad, K. A. (1996). A signaling explanation for charity. *American Economic Review*, 86, 1019-1028.
- [31] Yoo, S. J.,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hilanthropy: Focusing on Seoul Citize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32] Allport, G. W. (1935). Attitude.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 [33] Cho, S. H.,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Affect Donation Attitude: Concentrat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09.
- [34]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35] Lee, S. E.,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Adolescent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0, no. 2. 313-335, 2009.
- [36] Salamon, L. M., Wojciech, S. S., & Anheier, H. K. (1996). *The Emerging Secto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37] Kim, M. S.,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with Adolescents' Donation Motive and Attitude toward Do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2013.
- [38] Giving Korea(2010). [www.beautifulfund.org](http://www.beautifulfund.org)
- [39] Cho, H. I., "A Study o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Traits Related with Volunteer Activities in the Area of Korea Social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1991.
- [40] Eun, G. Y., "Reflection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eer Services on Citize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12, 2002.
- [41] Ju. J. J.,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on Promoting Sense of Community in Soci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111, 2003.
- [42] Choi, Y. A.,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on the Cultivation of the Senses of Community and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5.
- [4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44] Drollinger, T. L. (1997).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monetary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이 창 식(Lee, Chang See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송 국 범(Song, Kuk Beom)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교육, 농어촌학교  
살리기
- E-Mail : bindlle21@hanmail.net